

# 가성비에 프리미엄까지 ‘취향존중’ “민족의 명절,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시장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고물이 기초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진 모습이다.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가격 대비 만족도, 실속과 프리미엄의 균형, 건강과 간편성 등 선물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따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식품·유통업계도 설 선물세트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수요를 겨냥해 맞춤형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인기 상품을 재해석하거나 명인·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한정판·프리미엄 라인업 등 고급화 전략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형 세트부터 프리미엄·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선택의 폭을 넓어졌다. 이번 기획에서는 식품·유통업계가 선보인 설 선물세트 트렌드를 짚고, 소비자 선택의 기준과 함께 달라진 명절 선물 풍경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혜택 넓은 ‘기프트 클럽’ 매출 2배 ↑

### 롯데백화점

우량 고객 대상 특별 혜택 제공  
구매 금액대별로 5~7% 상품권  
온라인 고객 8% 옐포인트 적립

롯데백화점이 명절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기프트 클럽’이 명절 매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 기프트 클럽’은 명절 기간 식품 선물세트를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등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멤버십 서비스다. 지난해 추석 처음 선보인 이후, 직전 연도 대비 우량 고객 수가 20% 이상 증가하고 명절 매출 기여도가 역대 최대인 60%대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혜택 범위를 온라인까지 대폭 넓혀 준비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본판매가 종료되는 15일까지 가입 고객이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대별로 5~7%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몰에서는 17일까지 동일 조건 구매 고객에게 8%의 옐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우량 고객 매출은 지난 설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도 가입 고객을 위한 상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마케팅부장은 “롯데 기프트 클럽은 고객의 선물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멤버십”이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통해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마련된 롯데 기프트 클럽 부스.

/롯데백화점

## 역대 최대 물량에 프리미엄 상품 1300종

###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 10만여 개 준비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을 맞아 이달 1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H몰 등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물·청과·주류·건강식품 등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 상품 1300여종을 선보인다.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물량인 10만여 개를 준비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1++ 등급 중에서도 최고 마블링 스코어(BMS) No.9 한우로만 구성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 (300만원)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세트’ (200만원) 등 초프리미엄 상품을 내세운다.

구이용 세트 물량도 지난 설 대비 30% 이상 늘렸다. 살치살, 새우살 등 고급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구이용모듬 매’와 스테이크용으로 구성된 ‘현대 한우 스테이크 매’

등을 만날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200g씩 개별 진공 포장한 ‘현대 한우 소담 시리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소담 모듬 세트’는 26만원, 구이용으로 구성된 ‘현대 한우 소담 매’는 38만원에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고당도·신품종을 중심으로 차별화했다. 사과·배 중심의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한라봉 등 디저트 과일 혼합 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비파과 당도 측정을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높은 상품만 선별한 ‘H스위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포장재 역시 플라스틱 대신 별집 구조의 100% 종이 완충재 ‘허니쿠션’을 사용해 친환경 가치를 높였다.

수산물에서는 길이 35cm 이상의 굴비로만 구성된 ‘현대명품 참굴비 세트’를 10세트 한정으로 준비했다. 또한 죽염으로 삶간을 한 ‘인산자죽염’으로 만든 영광 참굴비 (33만원)와 조리 편의성을 높인 ‘바로 굽는 영광 참굴비’ (12만원) 등 다양한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소개한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 본판매에 돌입했다.

/현대백화점